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새벽말씀>

오늘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를 믿어야 산다. 혹은 이같은 믿음.

누구 같은? 금주는 백부장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대의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동안 겪어와서 알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졌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본문말씀 다 알죠?

백부장 나오지, 예수님 나오지, 중풍병자 나왔지.

이 세 사람을 여러분들이 꼭 먼저 알고 있어야

오늘 새벽말씀과 주일말씀 한 것을 더욱 명심하고,

잘 기억을 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말씀을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에게 준 것은,

성경에 31062절 가운데 이 본문말씀이 나온 것, 준 것은

수천 군데에서 이것을 준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본문말씀을 줬느냐.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때,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너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일주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선포하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계속 할 일이 많고,

한 주일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한 거야. 이렇게 하라.

옛날 얘기, 이렇게 역사가 돌아다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와 같이 할 때다. 꼭 하라! 매일 하라!

그런 말씀해서 본문 말씀 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멘 해야 돼요. 말씀하면 자꾸 아멘 해버릇 해야 해요.

임금들이 옛날에 얘기하면 절하면서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말씀하면 그러하옵니다, 율소이다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을 잘하면 어마어마한 점수가 떨어져요.

단상에서 말씀하면 너무 자주 아멘아멘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시인을 하면서 아멘을 해야 해요.

청중이 많을 때는 그러지만 그냥 조용한 집에서나 교회에서는

고개 끄덕하면서 아멘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보낸 자로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안 했을 뿐이야.

안 하면 문제 생겨.

안 하면 하나님께 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태도 점수.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태도 점수 다 나오죠? 매너 점수.

사람들이 같이 대화할 때 대화하는데 들은 척 만 척 하면 너 틀렸어.
나부터도 그렇다고. 내가 만나서 얘기해주나 봐. 반응이 없어?

아멘! 하나님 아멘, 성령님 아멘.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안 돌아가. 영광이. 꼭 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셔. 너 할래, 안 할래?
이것들이 10년 해도 그냥 듣기만 해?
나는 그냥 내려가도 상관없어.
아멘 꼭 해. 알겠습니까?
감히 누가 말하는데 아멘 소리를 안 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해.
안 하면 사탄이 자꾸 채가요.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사망으로 가.

아멘 안 하면 믿음의 큰 도장이 아멘이야.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멘 하면 도장 쳤단 말이야.
자기 땅이 되려면 도장을 쳐야 돼.
도장 안 쳤으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야.
나중 가서 본인이 돈 다 줬는데도 도장 안 치면 아닌 거예요.
아멘이란 도장을 꼭 쳐야 돼요.
아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말씀할게 들어봐요.

이 본문말씀 백부장과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배경 얘기는 지난 말씀으로 다 들었죠? 세밀하게 제작해서 다 보여줬어요.
나는 아멘아멘 했어요. 저렇게 해야 한다고.
자,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말씀 성령과 같이 말씀했어요.
말씀한지가 10분도 안 되고, 5분도 안 됐어요.

이 본문말씀 하나님은 성령도 하나님도 잘 들으라 했어요.
너희는 이같이 하라고 이 본문 말씀 한 거다.
너희는 백부장 아니면 중풍병자야. 아니면 메시아든지. 세 명 중 하나다.
여러분들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백부장입니까, 중풍병자입니까? 한 번 생각해봐.

중풍병자는 한 쪽 마비가 돼요.
한 쪽 마비가 돼서 손이 흔들려요. 마비돼서 흔들리는 거야.
한 가운데 뇌가 두 개 있어요. 뇌가 있는데
이 뇌가 한 쪽 신경이 막히면, 우측에서 뇌가 터지면 좌측에서 마비가 돼요.
좌측에서 뇌가 터지면 우측이 마비돼.
성경 풀려면 의학도 통달해야 돼.
모든 것이 다 통달해야 성경 푸는 거야. 통달.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비된 자들이예요. 신앙이 100% 못하고 마비된 자, 중풍병자들이예요.
여러분들이 마비된 자들은 다 중풍병자에 해당되는 거야.
중풍병자 아닌 자는 백부장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아닌 자가 백부장인데 여러분들 백부장 역할은 지도자라 뭐라 할 수 없어요.
아닌 자는 마비되지 않고, 100% 쓰는 사람,
수종 볼 줄 알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백부장이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날 같이 말씀해주십니다. 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한 사람이 성하지 않은 사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진 원인은 수요일날 말씀하겠지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예요.
결국 예수님이 넣어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신혼골수 살피시는 하나님이 설교하죠.

주가 계속, 예수님이 환자 고치는 것이 보고됐어요. 들었어. 옆에서.
거기 주관권에서 백부장이 근무하니까.
또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록해야 돼요. 백부장은.
그 주관에 해당되는 것 전부 보고를 해야 하니까.
예수님 소문이 켈 많이. 맨날 아픈 사람 고친다, 하나님 외친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외치고, 병도 고친다.
자기 집에 환자가 있으니까 솔깃했죠. 고친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으면 어떻게 복음 넣고, 소문 내려고 하죠?
그런 소문이 갔고, 소문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인식이 좋았어. 왜 인식이 좋았는가 하니
백부장은 그 나라 사람이고, 제2의 중립국의 사람이야.
인식관이 좋은 인식관을 가졌죠.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을 볼 때와 우리가 볼 때 다르죠. 중립국에서 보기 때문에.
두 사람, 싸우는 사람이 보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왜 저러나, 싸우나 지켜보는 거야.
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는가, 또 왜 따르는가 보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거느리는 사람 있으니까
딱 보니까 좋은 얘기만, 병 고친 얘기만 들어.
하나님 전한다 들려오고, 예수님 행한 것 들려오고.

이미 예수님을 다 보고했어요.
백부장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싶어 한다고 다 보고됐죠.
나도 다 사전에 미리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하자. 인식이 좋은 상태로 말씀한 거예요.
그런 소문의 복음이 참 큼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 못 만나면 소문을 내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좋게 보는 자들, 나쁘게 보는 자들.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인식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딱 보고하는 거야. 간절히.

보통 보고하면 그냥 알았다, 편지 받았다.
너무 간절하게 보고할 것을 간절하게 보고하면
딱 그래, 잘 있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면 찾아갈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인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말씀만 하시면 났습니다.
직접 말씀만 하시면 났습니다.
그에 해당되게 나오라고 말씀하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50여명에게 답을 주고,
4~5명에게는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게 해줬습니다.
아주 막 다른 전로에 서있어. 눈을 순간도 팔지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자 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계속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백부장 안 되면 중풍병자야. 마비돼서 못하는 거야.
지도자도 본인이 중풍병자니까. 보고를 안 하니까.
전화하면 너 왜 이랬냐!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쓰러졌냐, 왜 마비됐냐 안 해요.
의사가 막 싸워요? 어서 오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주사 폭 찌르고, 약 주면서 내가 다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고침 받는 거야.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여러분들 중풍병자 고쳐봤죠? 엄청나죠?
조은이목사도 기도해서 고치더라고. 당연하죠. 고쳐야지.
나와 일체되고, 하늘과 일체되면 고치는 거야.
혈체어 타던 사람도 집어던지고.
여기 월명동 오는 80세, 90세 되는 사람도
약수 먹이고 기도하면 혈체어 버리고, 지팡이도 버리고 가더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이 백부장과 함께 해서
감동 주고, 성령이 함께해서 감동 주고.
그래서 가지도 않고 고쳐버린 거야. 믿습니까?

백부장이 아멘!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멘아멘! 네네! 갈 것도 없습니다. 메시아인데 선포만 하면 그냥 났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고 칭찬했어.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이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속 시원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백부장 같은 믿음!

주일말씀 듣고 백부장 같이 믿습니다 하고 편지 왔어요.
주일날 그 말씀이 선포돼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누가 나에게 말했어. 어디 갔다 오는데 인사를 하고 있어.
꼭 백부장과 똑같애.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절 잘 지내셨어요.
나는 허름하게 양복도 없고, 일복 입고, 일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선생님. 누구냐? 어디서 왔습니다. 그러냐? 어머니와 같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아주 젊으시네? 40대 조금 넘었으니까.
왜? 어머니가 말하게 하라. 어머니가 말 안 해.

자기 어머니는 신천지 7년 다녔는데
내가 섭리말씀 주니까 머리 아파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바람 쐬러 나들이 왔다고.
그래? 나는 일하러 왔다. 잠깐 거쳐 왔다.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앉혀서 시대말씀을 해줬죠.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신천지라 핵심적인 교리가 뭔가 하니 14만 4천만 구원.
그것만 구원 받으면 되겠냐. 예수님 이후에 엄청난 사람이 구원 받아야지.
절대 아니다. 잘못되게 가르친다.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을 정확히 전해줬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라 했어요.
돌아온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들어본다고, 주일말씀 꼭 듣는다는 거야.
거기에 딱 걸린 거야. 백부장 말씀 듣고 확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이 딸의 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토요일에 일어났던 사실이고,
그리고 일요일에 100% 믿음을 받게 됐다고,
나 좀 이 믿음 변하지 않게 부탁하고 갔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환경에서도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을 중심해서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계속 간절히 백부장 같이 제대로 알고,
인식을 제대로 알고 얘기해주면 고침을 받게 해줍니다.

중풍병자 환자도 됐든 그리고 뭐가 됐든. 신앙의 중풍병자 됐든.
여러분들 중풍병자 아니잖아. 신앙의 중풍병자 많지.
왜? 전신마비가 아니라니까 중풍은 반절 마비예요.
뇌에 피가 막혔어. 그것을 수술해야 하는데
고침 받으면 수술한 것과 똑같아요.
나도 그것을 고침 받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해서 고침 받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 말씀만 해주시면 고쳐줍니다.
나도 시대의 백부장 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은 백부장 입장도 중풍병자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중풍병자입니다 기도하면서 본인도 고침을 받아야 해요.
기도하면서, 뛰면서, 간절히.
백부장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남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마비가 된 사람은 아예 생각을 못합니다. 신경이 마비돼서 몰라요.
그래서 아는 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이런 것들이 꼭 이뤄져야 돼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자체에 많은 생명들이 고침 받을 수 있으니 해야 하고,
민족 세계적으로 중풍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보고하고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행하시죠? 내가 행할 것도 행하지만은.

이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시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하면 된다는 거야. 100% 된다 말아야.
100% 하잖아요. 믿습니까? 100%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기도 됐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
엘리야 기도 해서 됐죠? 또 누구죠?
모세와 같이 됐죠? 다니엘 같이 됐죠? 그렇게 해서 됐잖아.
다니엘 기도 같이. 모두 살았죠? 그런 기도 됐다!

1년 동안 말씀하는 거 보면은
전부 순서 있게 차곡차곡차곡 해요. 거기 맞춰서.
1년치 보면, 365일 새벽예배도 보고, 주일날 말씀 보면
전부 차곡차곡 탑 쌓듯 해놨어요.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된다.
대개 새벽말씀 안 듣고, 주일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가정도 안 되고, 자기도 잘 안 되고.
정상적으로 할 때 정상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정상적으로 안 하면 정상적으로 안 되죠?
자, 이제 시를 썼어요. 읊어줄게요.

<전로,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 절벽에서 하소연하는 막막한 생명아
너 내 말을 다 듣기 전에 다급해서 내 손을 잡고 내 마음 잡아 끌어당긴다
마지막 길이고구나 내 너를 순간 보아도 눈 팔 시간이 없구나
구원자는 살려야 한다
하나님 성령님 육신 쓰고 너를 잡아당겨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그 권세로 끌어당긴다
영원한 생명길이다
이제 내가 혼자 생각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나와 같이 하자
다시는 이 길을 와서는 안 된다
다시는 홀로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주와 함께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가야 인생일생 영원까지 사랑의 세계고 행복의 세계다

이거 시 쓰자 해서 썼어요. 역사에 남기자고.
이렇게 하면서 힘나게 오늘도 백부장이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보고하면 된다.
된다! 그러면 충분히 하죠.
어느 정도 딱 돌 갖다 주면 선생님이 쌓는다. 좋아서 얼른 세운다.
이러면서 부지런히 하기를 바랍니다. 열렬하게 해야 돼요.
다같이 백부장이 되고, 중풍병자는 몰라. 그들을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웬만한 건 자체로 하고, 너무 무거운 돌들은 하나님께 올리고,
나로 올려서 해결 받는 때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